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h1>보 도 자 료</h1>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div>담당 부서</div> <div>관광마이스과</div>	<div>배포일자</div> <div>2024년 4월 30일(화) 총 3매</div>	<div>담당자</div> <div> • 관광마케팅팀장 한창현 ☎440-4001 • 담당자 최정환 ☎440-4003 </div>	
<div>사진(이미지)</div>	<div>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div>		
<div>보 도 시 점</div>	<div>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중국 단체관광객, 인천 몰려온다 ... 11만 명 유치 협약체결

- 지난해 중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중국 시장 경쟁우위 확보 -
- 국내외 여행업계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11만 명 유치 성과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중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인천 공항·항만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들의 인천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 세일즈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중국 시안시와 정저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개별 및 특수목적 단체 등 중국 관광객의 수요 회복을 위해 4월 28일에 시안, 그리고 4월 30에는 정저우에서 인천관광 유치 세일즈를 개최했으며, 협력 여행사 등과 함께 현지 공동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관광·수학여행·문화교류 단체 등 11만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파트너 여행사들로 구성된 합동 방문단을 꾸려 인천 관광 마케팅 주력 도시인 시안에서 현지 여행사

비투비(B2B) 상담과 세일즈콜을 시작으로 8만여 명의 무술·문화교류 단체 유치에 나섰다. 또 관광 신흥도시 정저우에서는 허난성을 방문해 양 도시 간 관광분야의 우호 협력을 다지고 역시 비투비(B2B) 상담과 세일즈콜을 진행해 인천의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홍보하며 3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8일 시안시를 방문해 팡 홍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를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인천관광공사의 기획유치 협약체결 등을 지원하며 양 도시 교류협력과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유치세일즈는 인천관광의 주요 시장 및 신규 관광 교류지 확장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더욱 알리고, 양국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붙임자료] 중국 세일즈콜 및 업무협약 체결

